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4-5

TEL.(02)726-1010(태), 1176 FAX.(02)726-1292

www.sdi.re.kr

세계

2

도시동향

2000년
6월 19일

HEADLINE NEWS

시정목표 달성도 홈페이지 공개 (워싱턴 DC)

워싱턴 DC는 지난 4월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전략계획(City-wide Strategic Plan)을 최종 발표하였다. 아울러 이 계획에서 제시하는 시정 목표들의 달성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장을 포함한 시 간부진과 각 부서를 대상으로 목표관리 카드를 제작, 공개하였다.

개별 카드에는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목표들과 달성 예정일, 그리고 목표달성여부 확인란이 나타나 있으며, 워싱턴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이 계획의 수립을 위해 2회의 시민포럼을 통하여 수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왔다.

(www.washingtondc.gov/mayor/news/2000/april/04_20_00.htm)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새로운 용도지역제 도입에 대한 논란 (뉴욕)
- ② 도로변 유료 공중화장실 설치 논란 (로스앤젤레스)
- ③ GIS를 활용한 유적지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동경)
- ④ 정보통신 시민 네트워크의 구축 (시카고)

도시환경

- ⑤ 도시환경오염으로 야생동물 격감 (상하이)
- ⑥ 수변공간 회복을 위한 Task Force 구성 (토론토)
- ⑦ 시민이 직접 관리하는 '시민녹지제도' 운영 (동경)
- ⑧ 사업장 폐기물 감량 프로그램 운영 (로스앤젤레스)
- ⑨ '환경을 배려한 물품조달 가이드 2000' 운용 (동경)

도시교통

- ㉔ '자가용 승용차 없는 도시' 선포 (유럽 주요 도시)
- ㉕ 버스우선신호시스템 도입 추진 (베를린)

사회복지

- ㉔ 방과후 어린이 프로그램 강화 (보스톤)
- ㉕ '남녀평등참여 기본조례' 제정 (동경)

행·재정

- ㉔ 稅源 이양 등 지방세제개혁 본격논의 (동경)
- ㉕ 미국 최초로 '가로시설물 시스템 모형' 시민 공개 (보스톤)

① 새로운 용도지역제 도입에 대한 논란 (뉴욕)

뉴욕시 도시계획국은 최근 'Unified Bulk Program'으로 불리는 새로운 용도지역제 (New Zoning Plan)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계획안은 40년만에 처음으로 뉴욕시 토지이용계획 전체를 수정하는 것으로, 건물의 최고높이, 개발권 이양에 관한 제한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뉴욕시 전역의 개발행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해당사자간에 찬반논쟁이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비영리단체들은 개발권 이양과 공공시설의 건설 제한 등을 우려하여 부동산업자와 더불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반면, 미국도시계획협회 등의 전문가 그룹, 시민단체들은 법을 잘 아는 전문가들만 혜택을 보는 복잡하기만 한 현행 토지이용규제제도의 문제를 없앨 수 있다고 보고 이 계획안을 찬성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올 하반기에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The New York Times, 6. 4., Section 11)

② 도로변 유료 공중화장실 설치 논란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시 의회는 지난 6월 6일 노상방뇨 금지 조례안 심의를 유보한 데 이어, 앞으로 도로변 자동세척 유료 공중화장실에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공중화장실 설치비를 충당하는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공공사업국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의 설치비는 한 건물당 15만달러 내지 25만달러이고 유지관리비도 연간 5만달러가 드는데, 1년에 6만달러 내지 7만5천달러를 내고 임차할 수도 있다. 지난 10년간 빈민가 도로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해온 노숙자대책 시민단체들은 노상방뇨를 조례로 금지하기 전에 공중화장실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Los Angeles Times, 6. 8.)

3 GIS를 활용한 유적지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동경)

동경도와 이타바시(板橋)구는 유적의 분포를 지도상으로 명시한 유적 GIS를 금년중 구축함으로써 유적 발굴 관련 정보제공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시가지 개발 때 유적발굴과 관련된 개발업체들의 조회에 신속히 대응하고 개발절차의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동경도내 전지역의 문화재 매장지역을 지도상에 입력함으로써 GIS를 구축한 후에는 CD-ROM 판매 등 여러 정보제공 방법을 검토중이다. 동경 자치구청 중 처음으로 유적 GIS를 구축하는 이타바시구는 도청의 GIS보다 상세한 정보를 보유하고, 앞으로 웹을 통해 공개하거나 민원창구에 단말기를 설치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日本經濟新聞, 6. 7.)

4 정보통신 시민 네트워크의 구축 (시카고)

시카고시는 시내의 모든 가정과 사업체, 그리고 기관들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시민들은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이나 비디오 서비스, 텔레커뮤니티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 송수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公私기관들간의 온라인 연결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체 등록, 직업훈련 교육, 건강관리, 평생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www.ci.chi.il.us/Planning/CITE/CivicNetwork.html)

5 도시환경오염으로 야생동물 격감 (상하이)

중국 산림청이 수행한 4년간의 조사 결과, 중국에서 가장 큰 공업 및 상업 도시인 상하이시의 야생동물이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재 상하이에는 8종의 양서류, 14종의 파충류, 159종의 조류가 있으며, 메추라기, 찌르레기를 비롯한 상당수의 조류는 이미 상하이에서 사라졌음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환경전문가들은 도시확산 및 환경오염으로 서식지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야생동물 종이 감소하거나 멸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Shanghai Daily, 6. 8.)

6 수변공간 회복을 위한 Task Force 구성 (토론토)

토론토시에서는 2008년 하계 올림픽 유치계획과 맞물려 총연장 46.6km에 달하는 수변공간의 차별화된 개발과 보전을 위해 Task Force가 구성되어 활동중이다. 이들이 마련한 수변공간 회복계획(Waterfront Revitalization Plan)은 토론토시의 관광 진흥과 개발수요 충족, 새로운 공원 조성, 신교통수단 기반시설의 구축 등의 비전을 담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녹색 완충지대 조성, 수변환경 보전과 창출, 새로운 주거·업무 중심단지 조성, 2008년 하계올림픽 상징으로서의 수변공간 이미지 창출, 대중교통로 개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www.city.toronto.on.ca/waterfront/)

7 시민이 직접 관리하는 '시민녹지제도' 운영 (동경)

동경도는 도시환경보전뿐만 아니라 지하수의 함양을 강화하고 홍수시의 우수유출에 의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2000년 녹지보전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시민이 참가하여 도시의 녹지를 보전하는 '시민녹지제도'도 운영중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지를 조사해 적지를 선정하고 이 후보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맺어 녹지를 조성하게 되며, 이 녹지는 그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되어 주민이 직접 관리한다.

(동경도청 자료)

8] 사업장 폐기물 감량 프로그램 운영 (로스앤젤레스)

County of Los Angeles 공무국에서는 매일 3,500톤씩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활용을 통한 사업비용의 절감방안'(Smart Business Recycling)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도시폐기물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쓰레기의 발생 특성이 다르므로 13개 업종별로 나누어 감량과 재활용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의 보급을 위해 '자문단'과 '직통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 사업자에게는 '사업배지'를, 우수사업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있고, 주정부에서 수여하는 '감량우수 사업자상' 후보로 추천하고 있다.

(dpw.co.la.ca.us/ped/brtap/home.html)

9] '환경을 배려한 물품조달 가이드 2000' 운용 (동경)

동경도는 물품을 조달할 때 환경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환경을 배려한 물품조달추진대책'과 복사용지, 파이프식 파일, 볼펜, 작업복, 복사기 등 55개 품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환경을 배려한 물품조달 가이드 2000'을 마련하여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배려형 제품의 유통을 확대하고 '수요자로부터의 환경혁명'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아울러 都는 동경도로 물품을 납품할 때 디젤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환경을 배려한 운송을 요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廣報 東京都, 5월호 제651호, 동경도정책보도실홍보부)

📌 ‘자가용 승용차 없는 도시’ 선포 (유럽 주요 도시)

오는 9월 2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유럽 주요 도시의 중심가는 차량 통행 금지 구역이 될 전망이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영국, 스페인 정부가 이날 공동으로 ‘내 차 없는 도시’(In town, without my car)를 선포, 시내 중심 지역으로의 자가용 차량 진입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이 행사는 대기 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의 50%가 자동차 운행시 배출된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대중교통과 전기·천연가스 자동차를 제외한 자가용의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유럽 대다수 국가가 일시에 자동차 없는 날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 차 없는 도시’를 주창해 온 나라는 프랑스로서, 지난 98년 9월 22일 전국 35개 도시에서 ‘자동차 두고 다니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travel.chosun.com/abroad/news/AbroadNews20000608_01.asp)

📌 버스우선신호시스템 도입 추진 (베를린)

베를린시에서는 버스의 승객수요증대의 일환으로 버스우선신호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버스우선신호가 단순히 버스의 빠른 통행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반해, 이 시스템은 버스의 정시성 확보 차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인공위성의 GPS 기술을 활용한 이 시스템은 버스의 정류장 도착시간이 예정보다 빠를 때는 우선신호를 작동시키지 않고 늦을 경우에만 작동시켜서 정시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술은 빨리 운행하는 버스가 오히려 버스의 난폭운전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있는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공공교통수단의 운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를린시 대중교통공사 / BVG, T. 030-256-0, Fax. 030-261-41-85)

☞ 방과후 어린이 프로그램 강화 (보스톤)

보스톤시는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방과후 어린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1998년부터 ‘방과후 2시부터 6시까지 프로그램’(2:00-6:00 after-school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보스톤시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공립학교, 민간기업, 각종 재단, 시민들로부터 1,700만달러의 기금을 모집하여, 지난 2년 동안 1,050만달러를 지원하였으며, 교육자, 시 공무원, 학부모, 프로그램공급자, 민간지원자들간에 서로 공동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종교계, 교육계, 비영리업체, 어린이 보호단체 등의 지도자로 구성된 특별팀을 발족시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통일된 비전을 제시하고, 각종 정책건의를 개발하도록 해왔다. 보스톤시는 최근 이 특별팀의 건의에 따라 1백만달러 추가지원, 추가 인력자원 배분 등 프로그램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www.ci.boston.ma.us/mayor/news/pr.asp?ID=631)

☞ ‘남녀평등참여 기본조례’ 제정 (동경)

’99년 6월 제정된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에 따라 동경도에서도 ‘동경도남녀평등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都, 도민, 그리고 기업이 각각 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廣報 東京都, 5월호 제651호, 동경도정책보도실홍보부)

㉞ 稅源 이양 등 지방세제개혁 본격논의 (동경)

동경도에서는 지방세제 전반에 관한 심의를 위해 이시하라 신타로 동경 도지사의 자문기관 형태로 ‘동경도 세제조사위원회’가 6월 1일 발족하여 활동중이다. ‘세원 배분’(소득세, 주민세의 세율구조의 재검토), ‘정책세제’(자동차 세제의 재검토, 지방 환경세 창설), ‘자산과세’(도시계획세, 고정자산세 재검토), ‘법정외세’(새로운 세금의 구체적인 도입검토) 등 4개 소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첫 보고서는 11월경 나올 예정이다. 현재 동경도에서는 都가 대규모 금융기관으로 외형 표준과세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방의 독자과세 문제가 큰 현안이다. 지방세제개혁의 본거지인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세원 이양은 지난 4월에 시행된 ‘지방분권 일괄법’에서도 보류된 과제로서, 어떤 구체안이 나올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日本經濟新聞, 6. 2.)

㉞ 미국 최초로 ‘가로시설물 시스템 모형’ 시민 공개 (보스톤)

보스톤시는 2000년 3월 말 유료공중화장실, 신문판매대, 버스대기소 등을 포함, 일련의 ‘가로시설물의 실제모형’(full-scale models of street furniture)을 공개함으로써 미국 최초로 조화된 가로시설물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보스톤시는 이 모형들을 2개월 동안 시청뒷길에 전시하여 시민들의 평가를 받은 후 가로시설물 프로그램 1단계 작업에 따라 8개의 자동유료 공중화장실과 250개의 버스대기소, 9개의 안내소, 4개의 신문판매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www.ci.boston.ma.us/mayor/news/pr.asp?ID=603)